

추모사

고(故) 김대중 대통령님이시여! 동양의 생사관이 불생불멸입니다. 생이무소득(生而無所得) 태어남이 얻은 바가 없으므로 사이무소상(死而無所喪) 죽는 것도 잃는 것이 아니라 생사가 하나입니다.

기(氣)의 이합집산일뿐, 연기(緣起)의 법칙일뿐, 한 생각의 변화일뿐입니다. 영원히 사신 선생님 앞에 죽은 우리들이 모여 애동하고 있으니 더욱 안타깝습니다. 알고 보면 천과 지, 너와 나 만물은 둘이 아닙니다. 하나의 기운이요 연기적인 일시적 현상일 뿐입니다. 선생님과 우리는 하나였습니다. 선생님께서 무엇이 된다고 보다는 어떻게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 가르쳐주시고, 무엇이 민주인지 아닌지 가르쳐주시고, 무엇이 인권인지 아닌지 가르쳐주시고, 무엇이 평화인지 아닌지 가르쳐주시고, 무엇이 화합인지 아닌지 가르쳐주시고, 무엇이 지역감정인지 아닌지 가르쳐주시고, 무엇이 종교정신인지 아닌지 가르쳐주시고, 무엇이 문화민족인지 아닌지를 온몸으로 말씀하시고 실천해 보아 주셨습니다. 선생님께서 무엇이 소름인지 꼭 막힌 먹통인지를 가르쳐주시고, 무엇이 해된 상생인지를 가르쳐주시고, 무엇이 정치인지 아닌지 가르쳐주시고, 무엇이 참으로 이기고 지는 것인지 가르쳐주시고, 무엇이 아름다운 인생인지 아닌지 가르쳐주셨습니다. 그리고 통일일은 꿈이 아니라 지금 당장 이를 수 있다는 가능성의 희망을 7천만 동포들에게 보여 주셨습니다.

후회 없이 역사적으로 살다가 신 선생님! 대한민국 국민의 자부심으로 남부한 동포의 자랑으로 세계인류의 삶에 평화와 민주의 등불로 살다가 가신 대통령님! 이 역사와 사회와 국민과 동포와 불이의 일생을 사신 선생님! 어디로 가시나 이제 천상과 극락은 지금 여기 전 민중이 땀 흘려 사람냄새 풍기며 사는 현실입니다. 선생님 성격상 좋은 곳에 혼자 머물지 않을 것인 줄 믿습니다. 재확사바 이 참을만하고 견딜만하고 꿈을 성취해내는 인동호의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아니 이미 와 계십니다. 천만인의 가슴속에 환생하시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모든 모순을 극복해내고 이기고 짐이 없이 다함께 더불어 사는 세상-대동세상, 새 세상, 통일정토 세상, 평화세상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아름답고 역사는 발전합니다. 이 말씀처럼 김대중 대통령의 생애와 철학을 가장 분명하게 표현해주는 말씀이 달리 있었습니까. 삶과 생명은 얼마나 소중하며 아름다운 것인지, 그 어떤 고난과 역경도 결코 생명의 순결함과 그 절절한 의지를 꺾을 수 없다는 것을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일생을 통해서 참으로 아름답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님의 생애는 살아있는 모든 이들의 삶이며 생명이고 가장 아름다운 역사가 되었습니다.

2009년 8월 22일
고 김대중 전대통령 광주·전남 추모위원장 지선

“하늘나라에서는 아프지 마세요”

목포 색동유치원생 90여명 ‘대통령 할아버지께 보내는 편지’ 눈길

“대통령 할아버지 이제는 텔레비전에서 볼 수 없게 돼 너무 슬퍼요. 북한과 사이좋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늘나라에서는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게 사세요”

무안군 삼향면 전남도청에 마련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분향소에는 맞춤법도 틀리고 비뚤비뚤한 글씨지만 갖가지 색깔로 정성스럽게 꾸며진 편지들이 걸려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하얀 유치원복 차림의 목포 색동유치원생 90여명은 21일 하트모양의 편지지에 자신들이 직접 쓴 추모글을 예쁘게 코팅해 국화를 놓는 분향소 하단에 걸어 놓았다.

“대통령 할아버지”를 못 보게 된 슬픔을 천진난만하게 표현한 글이 있는가 하면 하늘나라로 가신 ‘대통령 할아버지’의 건강은 물론, 남북협력에 감사한다는 내용까지 대견스러운 글도 있었다.

강민규(7)군은 “노벨평화상을 받으신 훌륭한 김대중 대통령 할아버지 보고싶어요. 지도 대통령 할아버지처럼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훌륭한 사람이 될게요. 하늘나라에서 편히 쉬세요”라고 올렸다.

다른 어린이는 김 전 대통령의 영어실력을 알고 있었는지 “대통령 할아버지는 혼자 영어공부를 하셨는데도 영어를 잘하는 것 같아요. 혼자 영어공부를 하면 심심했지요?”라고 물어 미소를 자아내게 만들기도 했다.

이옥련(7)양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더 따뜻하게 보살펴 주셨던 그 마음처럼 지도 그렇게 하겠다”며 “하늘나라에서는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사세요”라고 애뜻한 마음을 전했다.

색동유치원 관계자는 “7살 어린이들이 직접 편지를 만들어 분향소에 들렸다”며 “어리지만 김 전 대통령이 어떤 분이셨는지 모두 잘 알고 있어 유치원 선생님들도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21일 무안군 삼향면 전남도청 분향소를 찾은 목포 색동유치원생들이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직접 쓴 편지를 김 전 대통령의 분향소 제단에 붙이고 있다. <전남도청 제공>

한반도기에 DJ 업적 기리며 영면 기원

옛 전남도청 분향소 일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분향소가 마련된 옛 전남도청 주변에 남북화해에 기여한 고인의 업적을 기리고 영면을 기원하는 메시지가 담긴 한반도기가 내걸려 눈길을 끌었다.

22일 광주시민합동분향소에 따르면 분향소 측은 지난 18일부터 이날까지 조문객들에게 흰색 바탕에 파란색 한반도

기(가로 15cm, 세로 20cm) 1천여 개를 나눠줬다. 이를 한반도기는 현재 옛 전남도청 입구부터 옛 광주지방노동청까지 200m 구간에 줄지어 걸려 있다.

한반도기에 담긴 메시지도 다양각색이다. “DJ와 동시대를 살았던 게 너무 행복하다”, “행동하는 양심, ‘사람을 존귀하게 알라’는 말씀을 마음 속에 품고 살겠습니다”, “민주화의 봄은 반드시 다시 옵니다” 등등.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운·전·조·심” 해안지역 항·포구 차량 추락사고 잇따라

전남 해안지역의 주차장과 도로 등에서 차량 추락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사고 차량은 경사로를 주행하던 중 갑자기 뒤로 밀려나면서 바다로 추락했으며, 사고가 발생한 도로에는 안전펜스나 난간 등이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6일 오후 2시20분께 완도

군 화포읍 노화도 한 해안 주차장에서 전모(55)씨의 예쿠스 승용차가 바다로 추락해 4명이 숨졌다. 또 지난 3월 30일 밤 11시경 목포시 북항 선착장에서 김모(여·47)씨의 마티즈 승용차가 바다로 추락해 김씨가 숨지는 등 차량 추락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최경호기자 choice@

고인의 업적을 기리는 글귀들도 눈에 띄었다. 시민들은 “민주·인권·평화는 물론, 남북 통일과 지역 감정을 없애기 위해 노력한 당신의 모습이 그립습니다”, “당신은 민주화의 기수, 남북통일의 선구자, 세계평화의 선구자입니다”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너무 큰 지도자를 잃었습니다” 등의 글을 통해 고인과의 이별을 아쉬워했다.

이밖에 “다음 세상에서는 정치하지 말고 편히 쉬세요”, “고인의 뜻이 훼손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등의 영면을 기원하는 추모글도 적지 않았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오늘 날씨, 오늘 처서, 기상안내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과 젊음이 있는 대학! 광신대학교

회순·보성 '폭염주의보' 휴일이자 김대중 전 대통령 영결식이 열리는 23일 광주·전남지역은 맑고 무더운 날씨가 예상된다.

격리 위주→항바이러스제 조기 투여 신종플루 대응체계 변경 태에서 타이플루를 투여해 치료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님의 명복을 빕니다. 향년 81세로 2009년 8월 22일 별세하시었습니다. 장례식장: 광주광역시 남구 남대동 1-1번길, 장례시간: 8월 24일 오전 10시